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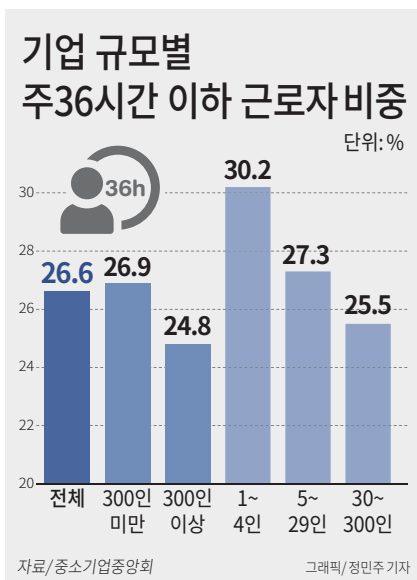
韓, 근로시간 감소폭 OECD 최고 “노사 근로연장 선택권 강화해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포럼 개최
10년새 연간 근로 210시간 감소
“성장·혁신 위해 예외 규정 필요”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중소기업계에서 주36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곳곳에서 이미 주4.5일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2014년 대비 2024년 현재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210시간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근로시간은 이스라엘보다 짧아졌고 이 추세대로라면 5년안에 미국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적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 중소기업 인력포럼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의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 내용에서 나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주4.5일, 즉 일주일에 36시간 이하 일하는 근로자 비중(2024년)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26.9%로 300인 이상(24.8%)보다 많은



등 전체 종사자가 적을 수록 증가했다. 아울러 주41시간 이상 비중도 중소기업(300인 미만)이 28.4%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27.5%보다 많았다.

중소기업이 단시간·장시간 근로 비중에서 모두 대기업보다 높은 모습이다.

노민선 연구실장은 “중소기업에서 주36시간 이하 근로가 대기업에 비해 늘어나는 것은 근로시간 감축 정책 시행에 따른 적응, 청년들의 인식 변화, 경기 침체로 인한 자연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연 1865시간(2024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연간 일하는 시간은 2014년 당시 2075시간에서 지난해 1865시간으로 10년새 210시간 감소했다. 10년간 근로시간 감소폭

은 한국이 가장 컸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112시간, 미국은 34시간 줄어드는데 그쳤다.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은 이스라엘(1877시간)보다 짧아졌고, 미국(1796시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과 OECD 평균 근로시간 격차도 287시간(2014년)에서 158시간(2024년)까지 좁혀졌다.

노 실장은 “미국 실리콘밸리는 주70시간 근무에 관심있는 자만 지원하라는 공고도 있고, 중국 중관촌은 ‘996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 근무)가 일반적인 만큼 글로벌 스타트업들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선 주52시간 근무를 넘어서면 불법이다. 하지만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기업 등에 다니는 주요 종사자들에게 대해선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제외해야 성장과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근로 및 성과보상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주52시간제 틀안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역시 주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5일제 전 업종, 전 직종, 전 부서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부서·직무별 맞춤형으로, 또 임금감소 없는 단축과 임금감소 있는 단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18일 경기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 두번째부터)한국섬유소재연구원 문철환 원장, 중진공 김일호 기업금융이사,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조창섭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진공,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팔 걷어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등 업무협약
주요 생산거점인 경기북부 유기적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기 북부지역 섬유 업계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진공은 18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국내 섬유산업의 주요 생산거점인 경기북부를 유기적으로 지원해 경쟁력 제고와 산업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

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인건비·원부자재 상승, 설비투자 위축, 전문 인력 부족 등 지역 중소 섬유기업이 직면한 어려움 해소를 공동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장비 등 인프라 활용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공동 건의 등이다.

중진공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사업, 내일채움공제 등 자금·수출·인력 분야의 사업을 적극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에코프로, 인니 양극재 라인 건설 본격화

니켈 제련소 추가 건설 등 2기 투자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4곳에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마무리하고 2기 투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연내 2단계 투자를 시작한다. 니켈 제련소 추가 건설 및 통합 양극재 라인 건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양극재 소재 가격을 기존 대비 20~30%가량 낮춰 삼원계 배터리 소재의 가격 혁

신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3년간 총 7000억원이 투입된 1단계 투자로 연간 전기차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니켈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2030년까지 연평균 1800억 원의 투자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는 이차전지 제조를 넘어 제련업 진출을 통해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중기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세운다

한성숙 장관, 정책 간담회 개최
“글로벌 수준 혁신 생태계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반기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8일 ‘선배 기업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 후배 기업이 가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하고 벤처캐피탈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보다 많은 유니콘 기업, 나아가 국가대표 빅테크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정책제언은 발표할 종합대책에 반영해 유니콘 탄생을 뒷받침하는 두터운 벤처투자 시장과 글로벌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AI·딥테크 분야 유망기업과 쿠팡, 토스 등 선배 유니콘 기업, 벤처투자자와 함께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선 새벽배송, 핀테크 등 혁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선배 유니콘들이 그동안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후배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쿠팡 박대준 대표는 “정부가 목표하는 AI 3대 강국 실현에 밑바탕이 되는 혁신 AI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75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면서 “쿠팡이 보유한 AI 기반 물류혁신 노하우를 토대로 투자받은 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수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PoC 협업 등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스 서현우 CFO는 “기업의 스케일업 단계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이후 글로벌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됐다”면서 정부의 과감한 스케일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자리엔 NEXT UNICORN Pr

oject’ 펀드를 직접 운용할 벤처캐피탈도 참석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공유하고, 투자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책제언도 내놨다.

스케일업 딥테크 분야에 선정된 KB인베스트먼트 윤법렬 대표는 “이번 펀드는 기업당 평균 100억원 이상 스케일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설정한 최초의 정책펀드”라면서 “금융권 벤처캐피탈로서 새 정부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추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AI융합 분야에 선정된 에이스톤벤처스 안신영 대표는 “AI 핵심 기술을 토대로 소비자나 최종 사용자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AI 전방 산업의 유망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투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당근마켓 ‘바로구매’ 배송

CJ대한통운이 당근마켓과 중고거래 이용자를 위한 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당근마켓이 지난 17일 출시한 ‘바로구매 서비스’의 배송을 전담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당근마켓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고거래 상품의 배송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물류 서비스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바로구매’는 판매자가 게시글을 올릴 때 바로구매 옵션을 선택하면 구매자가 결제하고 택배배송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거래 서비스다. 배송기사가 판매자 지정 장소에 도착해 상품 집화부터 최종 배송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E2E(End to End) 물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중고상품 거래 경험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LX하우시스, ‘솔라시스템 루버’ KS 인증

LX하우시스의 BIPV(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제품 ‘솔라시스템 루버’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KS(국가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루버 형태의 BIPV 제품들 가운데 최초 KS 인증이다.

18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솔라시스템 루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실에 공기 순환을 위해 설치한

루버의 블레이드(날개)에 태양광모듈을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제품이다.

LX하우시스 솔라시스템 루버는 BIPV 제품들에 요구되는 전기·구조·안전 성능 분야의 KS규격(KSC 8577) 21가지 항목 테스트 결과 태양광모듈의 기능(전기적 요구사항)과 건축자재로서의 기능(구조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다. /김승호 기자